



오병이어의 기적

카를리 라파엘로(Carli Raffaello, 1466-1524)
프레스크화
벨라리바의 성 안토니노 성당, 이탈리아 피렌체

입당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2열왕 4,42-44

화답송 | 시편 145(144),10-11.15-16.17-18(© 16 참조)

◎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펼치시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 주시나이다. ◎

○ 주님은 가시는 길마다 의로우시고, 하시는 일마다 진실하시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

제2독서 | 에페 4,1-6

복음환호송 | 루카 7,16

◎ 알렐루야.

○ 우리 가운데에 큰 예언자가 나타나셨네. 하느님이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네. ◎

복음 | 요한 6,1-15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육신과 영혼을 채워주는 음식, 하느님의 사랑



황인수 이냐시오 수사 | 성바오로수도회

“아가, 어서 오너라. 배고프지?” 어릴 적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산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 시절 수업이 끝나면 학교 아래에 있던 큰 이모님 댁에 들르곤 했는데, 큰 이모님은 저를 언제나 정이 뚝뚝 흐르는 눈길로 반겨주곤 하셨습니다. 찢 감자나 삶은 옥수수 같은 걸 내어놓으시면서요.

오늘 예수님은 필립보 사도에게 어디서 빵을 구해 사람들을 먹일 것인지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해야 할 바를 알고 계셨지요.’ (요한 6,6 참조) 그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지쳐 있는 이들, 그냥 둘러보냈다가는 길에서 기진할지도 모르는 그들(마태 15,32 참조)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을 먹이고,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감 없이 보여주십니다.

대 바실리오 성인(330-379)은 고아들을 돌보고 병자들을 치료하며 순례자들을 환대하는 마을을 세워 그리스도교 사회복지 제도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이 때문에, 대 바실리오스는 근대적인 병원의 창시자로 여겨지기도 하며, 이 마을은 성인의 이름을 따서 바실리아드(Basilad)라고 불렸습니다. 대 바실리오스의 영혼의 벗,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친구가 죽은 뒤 그의 행적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물론 바실리오스는 빵 다섯 개로 수천 명 사람들의 굶주림을 달래주지는 못했습니다. 남은 조각만으로 다른 식

탁을 차릴 만했던 그 기적을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 그러나 바실리오스는 이러한 기적들이 낳은 결과를, 같은 믿음으로 묵상하고 행하였습니다. 부유한 이들을 설득하고 권면하여 공간을 열게 하였으며 성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였으니, ‘굶주린 이들을 위해 빵을 나누고,(이사 58,7 참조)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며,(시편 132,15 참조) 기근 중에 그들을 먹이고,(시편 33,19 참조) 배고픈 영혼들을 채워준 것입니다.(루카 1,53 참조)’ 어떻게 그리했을까요?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근을 당한 사람들, 말하자면 겨우 숨만 쉬는 갓난아기들,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아이들, 온갖 나이의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은 뒤 굶주림을 달랠 만한 곡물들을 모두 모아 소금 간을 한 음식과 콩죽으로 가득 찬 냄비를 준비하여 가난한 이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스스로 종이 되시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당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종들, 아니, 함께 섬기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육신을 돌보고 그들의 영혼까지 돌보았습니다.”(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연설》 43,35)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굶주린 사람들의 육신을 채워주시지만, 이제 사랑에 주린 사람들, 그 존재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당신 생명을 내어놓으실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복음은 단순히 빵을 많게 하신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넘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생명을 보존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에서 시작된 나눔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화 되어 많은 이들에게 베풀어집니다. 이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내가 아닌 우리의 나눔이 시작되기를 바라 봅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나만의 연기 비결



지진희 요한 | 연기자

저는 연기를 정식으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저 우연한 기회에 연기자의 길로 들어섰고 대중의 사랑을 받게 되어 지금까지 왔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연기를 잘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꾸준히 연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은총이 있었을 뿐이죠.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연기를 정말 잘하는 배우인데 기회가 없어서 작품을 하지 못하고 대중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연기를 그렇게까지 잘하지 않지만, 꾸준히 배우 생활을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저는 연기를 잘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는 배우들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연기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배우에 비해 늦게 연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된 것이죠. 늦은 만큼 저의 고민은 깊고 진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역할을 맡을 때마다 고민했습니다.

2002년에 H라는 영화에서 형사 역할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형사라는 직업 탓에 상당히 거칠고 험한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전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대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맡은 역할의 형사처럼 욕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본에 적혀 있지 않은 인물의 환경을 나름대로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인물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아니면 부모님이 양쪽 다 계실지, 아니면 안 계실지, 어떤 성격의 부모님 밑에서 자랐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될 때까지 그가 겪었을 일에 대해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만났을 갖가지 범죄와 범죄자를 그려 보았습니다. 그렇게 환경을 설정하고 나니 인물이 이해되기 시작했

습니다. 사람은 분명,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요.

이 정도의 연기 기술은 대부분의 배우가 쓰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찾은 또 하나의 연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연기가 무슨 상관이나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좋은 사람이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닫고 느낀 연기 비결입니다.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소리를 듣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서 나를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안에 좋은 것이 가득 차, 연기를 할 때, 좋은 연기로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배우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에 적용해도 좋을 비결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청소부가 되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 되며, 좋은 사람이 좋은 요리사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도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좋은 것을 채우려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큰 좋은 것이지요.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작가

한
글
교
리

최초의 예언자는 모세,
최후의 예언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관점에서 보면,
최후까지 예언직을 수행하는 보루는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희망과 애착, 그 사이에서



방종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어떤 인디언 부족의 성년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족에서 성년식을 치를 나이가 된 아이들은 옥수수밭을 가로질러 가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옥수수밭으로 들어가 반대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붙는데, 가장 좋은 옥수수를 하나 가져와야 한다는 것, 옥수수는 단 한 번, 하나만 딸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밭을 가로질 때 한 번 지나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은 작고 볼품 없는 옥수수를 가져옵니다. 밭을 가로지르는 동안 좋은 옥수수들을 많이 발견하지만 '더 좋은 게 있겠지, 조금 더 큰 게 있겠지.' 하면서 지나치다 보면 어느새 출구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출구 근처에서 그럴듯한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보통보다도 못한 옥수수지만 정신없이 가져오느라 이제 살필 시간도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인 차원의 희망이 보이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희망하지만 좀처럼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고 또 다른 것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의 시간이 영원하리라는 착각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국 마주하게 되는 것은 허전함, 혹은 또 다른 욕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희망은 무엇일까요? 희망은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주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덕(믿음, 희망, 사랑) 중 하나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은총이 주는 도움에 힘입어

하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하는 덕'입니다. 즉 희망의 덕은 세속적인 것이 아닌 하느님을 희망하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인간의 희망'과 '그리스도교인의 희망'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인간의 희망'은 일시적이며 변화하는 특성을 지니고,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희망은 사실상 '애착(좋아하여 집착함)'에 가깝습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인의 희망'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고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 참 행복의 의미를 전하심으로써(마태 5,1-12 참조) 세상의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느님께 희망을 둘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 희망은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줌으로써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광활한 옥수수밭과 같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기, 재물, 승진, 학벌, 외모, 건강, 자녀의 성공 등 다양한 것입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로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것이 최종 목적이 될 경우 우리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성취하지 못할 경우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무의미한 것으로 여기게 되며, 성취할 경우에는 또 다른 욕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참된 희망의 목적이 되어야 할 하느님께 다가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께는 가장 좋은 희망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자비로 이끌어주시는 하느님입니다. 그러니 바로 그분을 주저함 없이 붙잡으시고 이 세상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작, 감독 '김태용'



영화 '원더랜드'

죽으며 살리라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레오나르도 보프의 저서 《성사란 무엇인가》에는 저자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 성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저자는 자신이 책상 서랍에 보물처럼 보관해 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바로 작은 유리 상자에 넣어 둔 담배꽂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담배꽂초는 저자가 독일 뮌헨에서 지내던 시절, 가족들이 보내온 편지와 함께 전해졌는데, 편지에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담겨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피운 마지막 담배꽂초를 편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저자는 편지와 함께 전달된 담배꽂초가 단지 불품없고 쓸모없는 꽂초의 형상에만 그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저자에게 꽂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현존케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상의 한 사물이 또 다른 하나,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을 상기시킬 때마다 그것은 성사적 기능을 띤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이것을 ‘성사적 사고’라 칭하며 그리스도교의 성사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습니다.

김태용 감독의 영화 <원더랜드>는 사랑하는 이의 죽음 혹은 그에 준하는 이별을 성사적 사고를 통해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죽은 사람 혹은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을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하여 가상의 세계에서 살게 하며 살아있는 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원더랜드’ 서비스가 일상이 된 근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사람들은 휴대전화처럼 주어진 기기의 화

면 너머의 복원된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이들은 자신이 복원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영화는 딸 바이지아(여가원 분)에게 자신의 죽음을 숨기기 위해서 죽기 전에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여 고고학자의 모습으로 복원된 바이리(탕웨이 분)와, 사고로 의식을 잃은 남자친구 태주(박보검 분)를 우주인으로 복원해 전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는 정인(수지 분)의 이야기를 중심축으로 삼습니다. 이와 더불어 원더랜드 서비스의 수석 플래너 해리(정유미 분)와 신입 플래너 현수(최우식 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손주 친구(탕준상 분)를 잃은 할머니 정란(성병숙 분)이 원더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친구를 복원하는 이야기,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원더랜드 서비스를 신청하는 용식(최무성 분)의 이야기들도 함께 펼쳐집니다.

영화 <원더랜드> 속 SF적 요소는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극복을 전제로, 욕망 해소를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국에는 상실감과 무력감에 휩싸이고 맵니다. 오히려 영화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두고 필연적으로 성사적 사고를 떠올릴 수밖에 없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렇게 영화 속 원더랜드 서비스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산물이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담배꽂초’와 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갈 때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집니다. 붙잡고 싶은 마음에 허둥지둥하다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실수 앞에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수한 내 모습을 마주하고 인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은소홀 작가의 동화 《5번 레인》에서 주인공 강나루는 한강초등학교 수영부의 에이스입니다. 여섯 살 때 두 살 터울인 언니와 함께 수영을 시작한 이후 열세 살인 지금까지 나루에게 수영은 삶의 전부이자 꿈이며 미래였습니다. 힘든 훈련도 잘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합에서 이기는 것이 즐거웠거든요. 가끔은 이기는 것보다 어떻게 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코치님 말씀이 나루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루에게 운동은 꼭 1등을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등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루는 누구보다 열심히, 혹독하게 훈련했습니다.

그런 나루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푸른초등학교 김초희. 초희는 나루보다 훨씬 늦게 수영을 시작했는데도 기록이 훨씬 빨리 줄었습니다. 늘 4번 레인에 서던 나루가 5번 레인으로 밀려난 것은 초희 때문이었습니다. 나루도 열세 살 치고 팔이 긴 편이었지만 초희의 팔 길이는 남달랐습니다. 초희를 의식하면 할수록 나루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평소보다 못한 기량

이 나오기도 합니다. 초희에 대한 반감은 커져만 가고 급기야 나루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에 본인도 크게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루. 처음에는 그저 도망치고만 싶어지지만, 곧 용기 내어 자기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물속에서도, 물 밖에서도, 떳떳한 사람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수하고,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장합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못난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어른이 있다면 더 힘내서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코치님이 나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수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메달이 없어도 나루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라고 엄마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가르침을 코치님이 꾸준히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루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순위에 연연하여 더 큰 잘못을 저질렀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워 나가는 그 고독한 여정에 조용히 곁을 지켜주는 어른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 당당한 사람으로 멋지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용서하오니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어떻게인지도 모르게 올해의 절반이 훌쩍 지나버린 요즘, 어찌 지내시는지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아서 해야 할 것도 없으시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하시다고요?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계획이나 목표 없이 지내고 계신다면 그 이유가 무엇지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바라는 것’ 또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더 정확한 표현이죠.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무언가를 바라게 하는 욕구가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만일 나의 욕구나 바람이 무엇지 잘 모른다면,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욕구를 무시하고 부정하기 때문일 겁니다. 욕구가 ‘좋다, 나쁘다.’ 판단할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내 안에 있어도 괜찮은 것, 오히려 있어야 좋은 것이라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 욕구와 관련하여 고생한 경험이 많은 우리는 자연스레 욕구를 부정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어려서 무언가를 먹고 싶거나 갖고 싶다고 졸랐다가 호되게 혼났던 경험,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 실망했던 기억, 인정받고 싶는데 그렇지 못해 비참했던 순간 등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가 많지요. 그런 상황을 접하며, 각자 대응 방식을 찾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공통으로 생겨나는 것은 욕구 자체를 나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욕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힘든 것인데 이 둘을 구별하기가 어렵다 보니, 욕구 자체가 나쁜 것 그리고 나 자신도 ‘욕구 덩어리’인 나쁜 존재라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렇진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다른 이의 욕구와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에 따른 행동을 너그럽고 관대하게 수용하기보다, 그로 인해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래서 상대를 미워하게 됩니다. 도무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런 우리를,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인 욕구를 나에게 주신 분이 하느님이신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힘들어하는 나를 나쁘게 보실까요? 욕구를 건강하게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며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께서 늘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나의 욕구를, 욕구를 가진 나를 더 용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 욕구 때문에 나에게 잘못된 그 누군가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미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용서를 참으로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루카 11,4)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소식

오늘(7월 28일)은 연중 제17주일(조부모와 노인의 날)입니다

‘조부모와 노인의 날’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www.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7년 8월 4일 정낙교 시몬 신부(34세)
- 1988년 7월 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 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1990년 8월 4일 김철규 바르나바 신부(72세)
- 2019년 7월 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교구청 알림

갤러리1898 휴관 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휴관: 7월26일(금)~8월6일(화)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8월1일(목) 14시~15시, 문화관 2층 소성당(코스트홀) / 문의: 02)727-2407, 2409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유동철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만 30세 이상)
원서접수: 9월9일(월)~13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1일(금)
문의(입학):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한국교회사연구소와 함께하는 생명살림강좌

주제: 밥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우리농 활동가 및 회원
내용: 초기 교회 선교사의 편지와 기록으로 보는 밥상이야기 외 음식문화 2강좌, 미사
때: 8월10일(토) 10시~17시(중식 미제공)
곳: 가톨릭회관 205-3호(명동) / 회비: 3만원(우리 1005-502-895550 천주교서울대교구우리농본부)
접수: 8월7일(수)까지 마감 / 문의: 02)727-2275, 7(wm.or.kr)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2024 시편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약: 조창수 신부
때, 곳: 8월1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내용: 시편 /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아카데미

2024년 청년 피정

주제: “성 · 생명 · 사랑의 길”
대상: 만 20~39세 미혼 남녀 / 회비: 10만원
때: 9월7일(토) 13시30분~9월8일(일) 16시(1박 2일)
곳: 쾨넨푸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피정의 집(용산구 한남대로 90) / 신청: www.forlife.or.kr(생명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 QR코드로 신청)
신청마감: 8월21일(수) / 문의: 02)727-2351 생명위원회

민족화해위원회

1) 1429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7월3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복본당’: 평양교구 마산 본당
문의: 02)727-2420
2) 평화 증진 관심 청년 모임 ‘토마소회’ 모집
자격: 한반도, 화해, 평화 주제로 연구 중인 대학원생 및 관련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
활동: 가톨릭 통일 · 평화 청년 연구자 모임
신청: 구글폼(https://forms.gle/X9sAHbbCS31cYKZa6)
문의: 02)3789-0815(caminjok@naver.com) 민족화해위원회

2024년 하반기 ‘가톨릭 50+ 학교’ 안내

대상: 50세 이상의 가톨릭 신자
곳: 교구청별관 523호 / 과목당 15명(선착순 마감)
1) 가톨릭 50+ 조부모 학교
교육내용: 손자녀에 대한 이해와 놀이 · 훈육 · 칭찬 방법, 올바른 신앙전수법 등 / 회비: 과목당 12만원

과목1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전수법	8월27일(화)~11월12일(화) 10시30분~12시(10주)
과목2	손자녀와의 행복한 상호작용	8월27일(화)~11월12일(화) 13시30분~15시(10주)

2) 가톨릭 50+ 글씨 학교

교육내용: 나의 인생, 나의 성구 성경 캘리그라피 교육
때: 9월2일(월)~11월25일(월) 13시30분~15시30분(12주)
회비: 15만원(재료비 별도) / 문의: 02)727-2385, 2386
신청기간: 8월18일(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교육신청 게시판 접수
자세한 내용은 사목국 노인사목팀 홈페이지 참조

사목국 ‘성서못자리’ 2024년 하반기 강좌 / 문의: 02)727-2379

접수기간: 7월29일(월)~25일(일) / 선착순 인터넷 접수
접수: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접수
1) 명동 오전 정기강좌(정기강좌 및 나눔터학교)
때, 곳: 9월2일~12월9일 매주(월) 10시30분~12시 30분, 명동 교구청 내 강의실(15주 강의)
개강미사: 9월2일 11시30분, 명동대성당
회비(교재 지급): 정기강좌 8만원, 나눔터 7만원
강사신부 및 강의실 홈페이지 참조
2) 청년(요한복사목), 직장인(입문) 성서못자리
때: 8월28일~12월11일 매주(수) 19시30분~21시(16주 강의)
개강미사: 8월28일 19시30분, 명동 소성당
수강료(교재지급): 청년 5만원, 직장인 8만원
3) 미주 온라인(zoom) 성서못자리 정기강좌(4편)
수강기간: 9월3일~12월10일 매주(화) 20시~21시 (미주 동부 시간 기준), 15주 강의
회비: 8만원(수수료 포함)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토는(토) 10시~16시(개인 연습+연습)	매월 15만원	010-8508-9384 담당: 강새문자문의요망
전례 꽃꽂이	매주(목) 10시~13시(교구반) 매주(목) 13시~14시30분(교구반)	7만5천원 (7개월/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수어	매주(목) 토는(토) 19시~21시	12만5천원 (6개월)	02)995-7394 에파타성당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7월29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 회비: 1인 7천원

일시	코스
8월28일(수) 오후 6시30분	저녁애순례길(양정교 코스) 명동성당, 김범우의 집터, 한국 천주교회 창립터, 좌포도청터, 창경궁 야간투어(오후 9시 해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가톨릭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8월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9월~11월)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가톨릭기	실기전론 과정	오르간 · 피아노 · 반주 · 성악 · 합창지휘 · 작곡 · CCM · 관악기 · 현악기 · 바로크악기 · 국악
양상발	그레고리오성가(남 · 여) · 성악(남 · 여) · 플루트 · 현악 · 목관 · 리코더 · 클래식기타 등	

특별 현금 모금 현황(2024년 상반기)

2024년 7월 16일 현재
(단위: 원)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교구청)

모금 일자	특별 현금	참여 본당	금액 (원)	지급처
1월 28일	해외 원조 주일 2차 현금	221	584,925,438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3월 24일	사순 시기 이웃 돕기	220	612,007,808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3월 29일	예루살렘 성지 복구	224	390,596,940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4월 21일	성소 주일 2차 현금	219	538,064,760	교황청 전교기구
5월 12일	홍보 주일 2차 현금	220	477,356,590	가톨릭평화방송, 평화신문
5월 26일	청소년 주일 2차 현금	220	497,047,562	청소년국
계			3,099,999,098	

※ 6월 23일 북한 형제 돕기 및 30일 교황 주일 특별 현금 결산이 끝나지 않아, 하반기 모금 현황과 함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인준단체 알림

모임

이탈리아 성지순례

때, 곳: 10월21일~31일, 밀라노·베니스·피렌체·피사·시에나·아씨시·산조반니-로토노·몬테카시노·로마
회비: 총 490만원 / 문의: 02)470-5821 천호동성당

매주교리에 기도 일일 피정

매주교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곳: 8월5일(월) 10시~16시,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8월3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해변 포함 8월10일~13일·8월24일~26일,
9월2일~4일·9월7일~9일·9월21일~23일·9월26
일~28일·10월1일~3일·10월14일~16일·10월19
일~22일·10월23일~25일, 추자도 포함 9월11일
~14일·10월5일~8일·10월27일~30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7월30일 김종국 신부 8월6일 이재을 신부

다들피정의 집 '섬리의 길' 섬 피정

1차	8월17일(토)~18일(일)	2차	8월24일(토)~25일(일)
3차	9월14일(토)~15일(일)	문의: 010-8906-2141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9차 8월9일(금)~17일(토) 문의: 061)373-3001,
제130차 9월13일(금)~21일(토) 010-3540-9001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8월9일(금)~12일(월)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8월15일(목)~17일(토)
성경 완독	8월23일(금)~31일(토), 9월27일(금)~10월5일(토)

가정성교회 8월 피정·미사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7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 미사	8월3일(토) / 박재찬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8월7일(수) / 양창우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8월17일(토) / 한철호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하부내포 도보순례 / 문의: 010-3807-1784

때: 국내 5차 9월1일(일), 완장포구(9.9km 도보)-서짓
골-삼타-도양골·6차 10월19일(토), 신시도(새만금)-산
막골(도보 2시간)-작은재·국외 11월24일~28일,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 출발: 7시, 가톨릭회관(명동) 후문
회비: 국내 1일 6만원·국외 1인 147만원

지혜의 샘 8월 피정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성모승천 대축일 피정: 8월5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손광배 신부,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2) 찬양 치유 대피정: 8월14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손동훈 신부, 서한석 신부, 한영임 회장
3) '일어나 걸어라' 피정: 8월26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박현민 신부, 박효철 신부, 한영임 회장

바오로 가족협력자-레벤복스(명동 성지 피정)

성바오로수도회 창립 110주년 / 회비 없음
대상: 바오로가족협력자 회원, 레벤복스 회원
때, 곳: 8월20일(화) 11시~16시, 명동대성당 코스트홀
프로그램: 강의, 점심식사-순례기도, 레크레이
션, 파견미사 / 준비물: 묵주, 바오로가족
기사서 / 문의: 02)944-8421·010-9752-8421 바오로가족협
력자회, 010-2557-1361 레벤복스(성바오로수도회)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여름 특별 피정 (우도 해변 포함)	8월2일~5일, 8월8일~10일, 8월14일 ~17일, 8월21일~23일
생태순례	9월1일~3일, 9월20일~22일, 9월28일~30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9월7일~10일, 11월18일~21일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
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14동작지구 오르간 교육

곳: 흑석동성당 / 문의: 010-4964-5274

성물 묵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노들담 중고등부 1일 캠프

대상: 중1~고2 여학생
때: 8월4일(일) 10시~16시
곳: 노들담 수녀원(인천 계산동)
문의(접수): 010-3733-7898 노들담 수녀회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8월29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영성센터 A동 201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2024년 국악성가 캠프 참가자 모집(국악성가연구소)

때, 곳: 8월30일~9월1일, 배론성지 / 회비: 25만원
강수근 신부 지도, 누구나 환영 / 문의: 02)558-2004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가을학기 수강신청

가톨릭과정, 문화예술인문과정, 자격증전문과정 등
교육 과정 상세 7월 중 홈페이지 등록 예정
곳: 가톨릭대 평생교육원(부천 역곡)
문의: 02)2164-6587, 8 / cukedu.catholic.ac.kr

서울성모병원 일반인 호스피스 교육

대상: 호스피스에 관심 있는 모든 분 / 계좌: 우리은행
1005-101-712022 (학)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때, 곳: 8월27일(화)~28일(수) 9시~17시, 서울성모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 문의: 02)2258-1901, 1904
접수: 7월29일~8월9일(전화 접수 후 입금) / 회비: 5만원

성경과 차(tea)의 만남(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곳: 왜관 수도원 문화 영성센터
회비: 8만원(접수 후 입금) / 계좌: 대구은행 504-
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1차	8월21일(수) 15시~22일(목) 13시	문의: 010-6791-0071 (문자)
2차	9월4일(수)~5일(목)	

마리아학교 9월 학기 모집

내용: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배
음, 33일 봉헌 / 접수: 가톨릭회관 311호
문의: 010-2724-4819 서울 마리아 학교

대면반	9월3일~2025년 2월16일 매주(화) 14시~16시 곳: 가톨릭회관 205호 / 핸드폰으로 신청함
Zoom반	9월5일~2025년 2월16일 매주(목) 20시~22시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9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화)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최화선 박사
(화)	성경대학-사도시대 초대교회의 삶과 영성2	송봉모 신부
(수)	죽음수업	홍기령 교수
(수)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번째 길	최지원 수녀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구약성경의 기초	주원준 박사
(목)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박상훈 신부
(금)	삶의 의미-철학적 도박, 신학적 리액션	김민철 신부

이콘 수강생 모집(입문반·중급반·실기)

때: 8월8일~10월24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성 이나시오 학교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없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2224-1342 신예은 선생

도림동교육센터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오프스데이)

대상: 재학 중인 남학생 / 홈페이지: dorimdongcenter.org
 내용: 가을학기 기숙사 학생 모집, 가족과 공부 분위기, 여러 교육 프로젝트(문화·봉사활동·문학·운동·국제교류 등), 개인방+개인화장실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프스데이
 문의: 010-2554-1507(dorimdongcenter@gmail.com)

서강대학교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전공

2025학년도 2차 모집 / 문의: 02)705-8678
 원서접수: 7월29일(월)~8월21일(수)
 전형일: 8월24일(토) / 모집: 메타버스엔터테인먼트, 게임그래픽·만화애니메이션, 게임 개발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위(미디어공학사) 수여, 본교 메타버스 전문대학원 입학시 장학혜택 제공,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3년 이내 학사취득 가능
 홈페이지: www.soganggame.ac.kr

모집

청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대상: 청소년과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청년
 내용: 청소년자원봉사자를 위한 보조교사 모집
 문의: 02)926-3440(www.stvin.or.kr)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8월22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8월3일(토) 9시30분~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콘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때: 8월3일(토) 10시 /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곳: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 문의: 02)793-2070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31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예수성심 신심미사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
 때, 곳: 8월2일(금) 11시10분, 절두산 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가톨릭목포성지 준대성전(Basilica Minor) 후원회 미사

때, 곳: 매주(토) 11시, 산정동 준대성전(2층)
 후원 ARS 번호: 060-700-1925(천국이오·한통에 1만원)
 후원 계좌: 농협 301-1177-1178-11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성지 담당: 최종훈 신부
 문의: 061)279-1177, 061)276-8300

안내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ca.or.kr)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부부, 가족, 여성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수도원을 철거하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움을 검토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플라바의수녀회)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곶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원주교구 사회복지후원회 '옥수수 잔치'에 초대합니다

때, 곳: 8월22일(목), 배론성지 / 8월15일까지 접수
 문의: 033)742-9113 원주, 02)2269-2930 서울

감사미사	11시~12시 / 원주교구청 조규만 주교 주례, 교구 사제 공동 집전
중식	12시~13시30분 / 중식과 옥수수 무료 제공
나눔잔치	13시~15시

직원모집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 문의: 010-7171-9503
 요양보호사 / 주40시간, 기숙사 가능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 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l886@catholicbook.kr) 접수

수궁동성당 주방근무자 모집 / 문의: 02)2617-8183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인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8월10일(토)까지 우편(우 08257,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1275) 및 이메일(dltlsh@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행정점검팀·재무회계팀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회계 관련 경력적 우대)
 업무: 회계감사 및 회계 관련 담당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8월4일(일)까지 이메일(ac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수녀원(미아동)	010-5604-1882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휴가철 추천 도서

“이곳은 안식처이니 고달픈 이들을 편히 쉬게 하여라.
이곳은 쉼터이다.”
(이사 28,12)



신간

알렉산드리아의 사자

장 필리프 파브르 지음 | 2만8천원

마침내 밝혀지는 ‘마르코 복음서’
탄생에 숨겨진 비밀

섬세한 묘사와 깊이 있는 탐구로 그려낸
복음서 탄생의 여정



신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손희송 지음 | 1만6천원

“믿음이 우리를 살리듯이
희망도 우리를 살립니다.”

‘희망’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세상과 인간의 기원 이야기



수능 D-100

수능 100일 기도 노트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1만4천원

수능 전 100일, 주님께
지혜와 은총을 청하는 시간

소중한 이의 앞날을
응원하며 100일 동안
작성하는 기도 노트



휴가철 추천 도서

지친 하루의 깨달음

안셀름 그륀 지음 | 1만3천원

영적인 신호인 피로를
다스리는 방법

이 시대 최고의 영성가 안셀름 그륀이
풀어내는 피로에 대한 이야기



휴가철 추천 도서

하느님도 쉬셨습니다

페터 아벨 지음 | 1만3천원

마음이 지친 당신에게 필요한
영혼의 쉼

번아웃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방법을 제시하다



휴가철 추천 도서

잠깐 멈추세요

게르하르트 바우어 지음 | 8천원

하루 3분,
신앙이 깊어지는 한 달 묵상!

바쁜 일상에 잊고 지내던
기쁨과 행복을 찾는 시간



가톨릭출판사

구입문의

02) 6365-1888 · 가톨릭출판사 인터넷쇼핑몰

www.catholicbook.kr ▼

